

대한양돈협회 직전회장(제6대 회장)

안병규 의원 국회 농수산분과위원장에 피선

국회는 지난 5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대한양돈협회 직전회장(제6대 회장 역임)인 안병규 의원을 국회 농수산분과위원장에 선출하는 등 12대 국회 후반 임기 2년의 국회 요직을 대폭 개편했다.

국회 농수산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된 안병규 의원은 지난 81년 9월 15일 개최된 대한양돈협회 임시총회에서 제6대 회장으로 피선돼 양돈농가들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크게 공헌했으며,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양돈업계에 이바지한 바 크다.

특히, 안병규 신임 농수산위원장은 지난 84년 대기업의 신규 양돈업 진출 억제 및 돼지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축산법의 시안을 마련한 발의자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한양돈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여 축산법 개정에 적극 반영하기도 했다.

경남 진양 출신으로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한 후 부산일보 기자 등을 거쳐 81년 11대 국회의원에 선출돼 의정활동을 시작한 안병규 위원장은 의정활동 첫해부터 지금까지 농수산분과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6년째 활동해 와 누구보다 농촌현실을 잘 알고 있기도 하다.

안병규 위원장은 「낙후된 농어촌을 개발하고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1차산업의 질적인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백마디 말보다는 실천하는 노력을 보여주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안병규 국회농수산위원장

◆ 약 력 ◆

- △경남 진양 출신(51세)
- △서울대 문리대 졸업
- △부산일보 기자
- △동아공업 부사장·회장
- △국보위 문공분과 위원
- △대한양돈협회 제6대 회장
- △11, 12대 의원(민정)
- △민정당 중집위원
- △민정당 수석 부총무